

# 무안군 유기농 보조금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 지난해 보조금 회수 조치 부적격 업체 농업단지 조성 사업자 선정 2012년 식품제조 가공지원사업 3억원 반납 전력도... 특혜 시비

#### 군 "자진 반납... 부정당업체 아냐"

무안군이 친환경 유기농 법인에 주는 국비 지방비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이 농식품부공모사업인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과 국내육성품종 대규모 단지조성사업,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조금 부정당업체에 해당하는 A업체를 선정해 특혜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1216만원, 지방비 4억2615만원, 자부담 1억2424만원으로 A업체를 선정 지원했다.

이 업체는 2022년에도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공모에도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4710만원과 지방비 4억191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요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2019년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250만원 군비 8200만원을 받았고, 2022년 고구마 육성품종 단지 조성 사업에는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군이 2년간의 사업이 끝나고 외부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 증빙서류에 기계장비 건설된 교육역량강화 등

**?**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과 발작물 공동경영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시·군 지자체장 주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 '주산지협의회'를 구성해 조직화·규모화해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시장 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생산자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공동이용농기계, 시설, 장비 등을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미비한 부분을 발견해 보조금 지급을 불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1년 8월 8500만원을 회수조치 통보해 2년 후인 2023년 7월 보조금을 반납한 업체를 잇따라 선정해 지원했다는 점이다. A업체는 또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지급됐던 국비 4억960만원, 지방비 3억4410만원,

보조금 7억5370만원을 자료에서 빠트리기도 2022년도에 정보공개자료에 없는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보조금 회수조치 등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할 A업체를 잇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업체로 선정해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은 2024년도 사업으로 연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료를 줄 수 없었고, 발작물 공동경영체사업에서는 증빙하지 못한 부분의 보조금은 자진 반납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업체는 지난 2012년도도 식품제조 가공 지원사업(참기름공장)과 관련 무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계장비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보조금 3억원 전액을 반납한 전력이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이달부터 6→7%로 상향



목포시는 4월부터 고물가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사진) 할인율을 현행 6%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월 구매한도는 1인당 70만원으로, 지류·모바일 통합 20만원, 카드 50만원이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은 축소하고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은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축협, 광주은행, 수협 등 55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 다운로드 후 사용)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목포사랑카드를 광주은행을 통해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목포사랑상품권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발행규모 2400억원, 가맹점 8600개소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 조정해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소비와 매출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



## 담양쌀 프랑스로스트리아 이어 체코 수출길

###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 20t 선적

담양쌀이 연이어 유럽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체코 아시아 식품유통 전문업체인 'SHINFOOD'와 수출 계약해 현지 판매 전용 브랜드인 '운수대통' 담양쌀 20t을 지난 1일 선적했다. (사진)

이번 수출은 지난달 18일 프랑스·오스트리아 수

출 초도 물량 이후 두 번째 대유럽 수출 물량으로, 1년 간 매달 20t을 수출해 현지 한식당 등에 판매될 예정이다.

담양쌀은 과거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과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8회 대상, 5회 최우수상을 받은 자타공인 최고급 명품쌀이다.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미주, 유럽에 300t을 수출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아토피 치유학교 운영 했더니 전학생 우르르 폐교 위기 몰렸던 장성 작은학교 되살아났다

### 축령산 자락 서삼초등학교 을 전교생 45명으로 늘어 활기

폐교 위기에 있던 전남의 한 초등학교가 아토피 치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수가 늘고 활기를 되찾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장성 축령산 자락의 작은 학교 서삼초등학교. 이 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아토피 치유학교를 운영하면서 몇 년 만에 뛰노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폐교 위기였던 학교는 올해 2024학년도에 지역 학생 8명, 전학생 22명, 농산어촌 유학생 15명으로 전교생 45명, 유치원생 11명 전체 56명이 됐다.

서삼초의 학교 시설은 아토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다. 일반 3개 교실을 친환경 교실로 바꾸고 학교 운동장 주변으로는 황토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해 학생들

과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심명자 서삼초 교장은 "아이들이 거의 매일 맨발로 황토길을 함께 걷자고 교장실에 찾아올 정도"라고 황토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아토피 치유학교는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아토피 치유학교로 운영된다. 지난해 약 2개월간 시범 활동을 통해 비전과 방향을 탐색했으며, 올해는 1기와 2기로 나눠 12월까지 총 28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토피 치유학교 프로그램은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음식 체험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및 한의사의 정기적 한방 진료 ▲축령산 편백숲에서 만나는 숲 놀이 전문가들과 백암산 국립공원에서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속 놀이 ▲교육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편백숲에서 이뤄지는 숲속 전시회 ▲백암사 템플스테이를 통한 친환경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김경자 장성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아토피 치유



아토피 치유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따라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다.

학교는 편백숲의 4계절에 맞춘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인 긴 호흡의 프로젝트라며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예방 및 치유의 기회가 주어짐에 학생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아토피 치유

특색교육이 있는 장성으로 유학을 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학생이 찾아오는 장성형 작은 학교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다문화가족 여성 3명

### 함평군 임기제공무원 됐다

함평군이 다문화가족 출신 3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공개채용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출신인 장혜정(42·여), 이유미(34·여), 조아나(43·여)씨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지역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창업 알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각종 행정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문화가족 출신의 공무원 채용은 지역사회 통합과 다문화수용성 제고 등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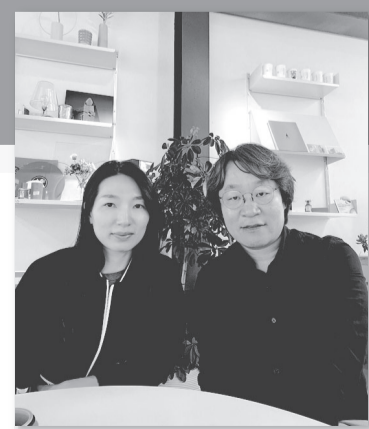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